

의무수입 쌀 북한 원조 가능해진다

농림부, WTO 관세수정안 제출시 MMA쌀 해외원조 금지 규정 삭제키로

내년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과거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전날 쌀 관세화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깊어진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의무수입물량인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수입쌀로도 북한 등 해외 원조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어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t중 95만t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때문에 의무수입 쌀을 대북지원에 못 쓰다보니 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대북지원과 해외 원조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가 이번 달 말 WTO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이나 대북원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일본은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 해외 원조용으로 매년 10만~20만t을 쓰는 반면 대만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수입 쌀의 용도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면서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새누리 시장, 운영위 워크숍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윤세·사진)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안도 해조류스파랜드에서 시장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김윤세 위원장 취임과 함께 새로 꾸려진 운영위원회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시장 핵심 당직자들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등 앞으로의 시장 운영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윤세 위원장을 비롯해 각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청강사 특강, 자유토론, 명사갯길 트레킹 순으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민이 인정하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학부모 간담회

광주시의회 문성필(새정치·북구 3·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장애학생들의 차등없는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지역 장애인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광행속 특수교육장학관, 박정선 선우학교 운영위원장(광주시 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이종주 세광학교 운영위원장, 오해란 선명학교 학부모회장 등 14명의 특수교육관계자와 학부모가 참석해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증차와 관용차 배치, 전공과 확대 설치,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 배치, 교육복지사와 상담전문 인력 배치, 1교 1종목 운동부 육성, 학급당 학생 정원 조정 등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리퍼트 주한미대사 인준안 통과

미국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안을 구두표결 처리했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의회 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리퍼트 지명자는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퍼트 지명자 인준안은 지난 6월 24일 상원 외교위에서 구두표결로 통과됐지만 여야 간 정치적 갈등에 8월 의회 휴지기까지 걸치면서 그동안 인준 표결이 지연돼 왔다.

리퍼트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아시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대안 모색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이란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전진숙(새정치·북구 4)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주지역 가정 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해 가정 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조선 많은 광산구의의회 갈등·자질론 증폭

해외연수 놓고 불협화음 지역민 따가운 눈총

제7대 광주 광산구의의회가 의정 경향이 없는 조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의원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 의회가 출범한 지 세달도 채 안돼 해외연수를 놓고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광산구의의회에 따르면 전체 의원 16명 중 10명이 조선이며,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 모두가 조선 의원들이다.

이처럼 의정 경향이 없는 조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 원 구성이 이뤄지다 보니 각종 의사결정 등을 놓고 의원 간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자신의 개인 민원을 놓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막말 추태까지 일삼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산구의의회는 오는 10월 6일 의원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연이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 의견만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협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비롯, 방문 국가와 인원 구성 및 여행사 선정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여행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 상임위원장이

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내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산구청 한 간부는 "최근 특정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업무가 아닌데도 하위직 여직원을 불러내 취조를 하듯 막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심하게 다그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의회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주민 김모(54·도산동)씨는 "조선 의원들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회 내부의 고민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곡물 자급률 목표 향상 등 전남도, 쌀대책 반영 촉구

전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에 따라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그동안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곡물자급률 목표를 2020년까지 32%에서 2030년까지 50%로 향상할 것,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2017년까지 1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 쌀 목표가격 결정에 불가인상을 반영을 법제화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는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연계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조례'에 따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70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생산비 절감, 농업기반 시설확충, 품질고급화, 유통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남도 차원의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절감 태스크포스(T/F)팀과 농업정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안전영농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오는 2019년까지 기존 4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경지정리율과 수리안정도 비율 등도 2019년까지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량종자 보급, 들녘별 경영체 및 쌀전업농 육성 등 쌀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미국종합처리장(RPC)을 통합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하는 등 쌀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한편, 전남도내 벼 재배면적은 17만ha로, 전국 쌀 생산량의 21%인 8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2014 Heungbu Festival
"우애·나눔·보은·행운"

제22회 흥부제

일시: 2014. 10. 2(목)~3(금)
장소: 사랑의 광장 일원

- 개막식 10.2(목) 19:10
- 기념식 / 주제퍼포먼스 / 불꽃놀이
- JTV축하공연 10.2(목) 20:00
- JTV방송 축하공연
- 댄스 / 트롯 / 7080 열린음악회
- 흥부·놀부 어울림 한마당 10.3(금) 19:00
-전국 춤 동아리 경연
- 국립민속국악원 "창극(흥부와놀부)"
- 10.2(목) 19:30, 10.3(금) 16:00 / 국립민속국악원
- 흥부체험마당 10.2(목)~3(금) 10:00~18:00
- 흥부지게, 놀부마누라 밥주걱, 화초장, 흥부 매품 등
- 안산팍스 오케스트라 都市樂(도시락) 콘서트 10.3(금) 16:00 ~ 17:00
- 재즈,국악과 어울려진 흥부 사랑에 빠지다

창극 흥부와놀부/기념식 축하공연/흥부놀부 어울림한마당/흥부골남원음악대회 백일장/그림그리기대회/독후감쓰기/흥부체험마당/전통회혼례/흥부사랑 떡나눔/안산팍스 오케스트라 도시락공연/한돈 소비 촉진 시식회

● 주최 / 주관 : 남원시·흥부재민위원회
● 후원 : 국립민속국악원 / 남원시 농·축협 / 문화체육관광부